

코로나19 지역 유입 방지 최선

무주군, 무풍면 4곳에 발열체크 초소 운영... 실과소 읍면 공무원 400여명 2교대 근무

최근 무주군 인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군이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발생 인근지역 4곳에 발열체크 초소를 마련했으며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풍면 덕산재와 덕지리 도마 마을 앞, 금령리 탄방마을 앞, 삼거리 H-힐스 리조트 앞에 마련한 초소에 6개 읍면을 포함한 16개 실과소 공무원 4백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 실천, △발열이나 기침 등 유증상시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읍을 시작으로 관내 6개 읍면 주민들에게 면 마스크 5만여 장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13일부터는 개인별 5매씩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각 가정에는 손소독제와 스프레이식 살균제를 각각 1병씩 공급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며 인근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 감지되면 △의출자제하기, △집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며 3~4일 경과 관찰하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상담·문의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하기(마스크 착용 필수),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 자외의 접촉여부 알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유증상자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도착지역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할 예정이다.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마스크 등 예방물품 3종 16만여 개를 배부했으며 터미널과 정류소,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일제 소독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무주군 선별진료소는 현재 보건소로 운영 중이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달 28일부터 무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19 경증환자 10명이 12일 진안군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아픔 함께한다

진안군의료원, 코로나19 자가 격리 경증환자 이송 입원치료

진안군은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19 경증환자 10명이 12일 진안군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후 선제적 조치로 전국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전북도 3개소)으로 지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과 전국적인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해 11일에는 군산·남원의료원에 12일에는 남원·진안의료원에 자가 격리 중인 경증환자가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진안군은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19 경증환자 10명이 12일 진안군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후 선제적 조치로 전국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전북도 3개소)으로 지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과 전국적인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해 11일에는 군산·남원의료원에 12일에는 남원·진안의료원에 자가 격리 중인 경증환자가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진안군의료원은 환자와 군민, 의료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3층 11개 병실을 구획·구분 격벽을 설치하는 등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의료진 공간을 4층에 별도 확보해 환자를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병실 내 공조시스템을 보완하여 확진자 병실의 공기가 병실 밖으로 순환되는 것을 완벽 차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지역상인들 만나 격려·애로사항 청취

공무원들도 25일까지 6개 읍·면 소재 식당 이용키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11일 무주읍 전간도로와 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가, 그리고 골목 상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무주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1일 무주읍 전간도로와 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가, 그리고 골목 상인들을 만나 격려했으며 25일까지는 6개 읍·면을 모두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외출까지 줄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일반 상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됐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키우고 카드형 상품권도 출시했으며 공무원들의 점심 외식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군청 구내식당도 1·3주차 목·금요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다수 식당 이용률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으로 다소 움츠러들었던 식당장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소비운동을 펼치며 지역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면지역 마을 대상 LPG 공동공급체계 구축

진안군은 11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 공동공급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적합도 및 탱크 부차확보 여부, 주민 참여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응모한 결과, 부귀면 부천마을이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LPG 공동공급체계는 마을단위로 LPG저장탱크와 가스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를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면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면지역 마을단위로 LPG 공동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군은 마을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LPG 공동공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보한 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면지역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제작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청소년활동 홍보를 위해 손소독제 제작을 진행한다.

개관·개학에 맞춰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제작은 청소년문화의집 및 여성청소년팀 직원들이 직접 손 소독제 1,000개를 만든다. 제작된 손소독제는

한편, 군은 청소년참여자치활동의 일환인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참여 청소년 모집 기간을 6월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전북도청 대외협력국, 진안 방문 방역 봉사활동 펼쳐

전북도청 대외협력국(국장 이강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진안군을 방문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간 이강오 국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주민 왕래가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진안고원시장과 마이빌(원통)을 비롯한 공동주택 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역 봉사활동에 나섰다"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전북도와 진안군이 하나 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자원봉사센터, 군부대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5일간 11개 읍면 공공시설과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계남면이장협의회 행복콜사업 홍보물 제작배부

장수군 계남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이창근)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행복콜사업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복콜사업은 장수군과 무진장여객, 개인택시와 계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저렴한 정액요금(1,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장수군 7개 모든 읍면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이장협의회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연락처 등이 포함된 홍보스티커 100매를 자체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이창근 회장은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많지만 주민들이 이를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더 고민하며 마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